

시사원정대 NIE 2022-7 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리딩북(별책부록)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신문의 사설·칼럼·기사를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읽기 능력과 논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리치북(책 속 부록)

최신 주목 받았던 경제 이슈 중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상식을 쌓고 자신의 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1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7월호 1주 (90분)		
학습 목표	신품종 과일이 기존의 과일과 어떤 점이 다른지 특징을 생각해본다. 종자주권이 왜 중요하며 이를 지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활동 초점	- 신품종 과일이 기존의 과일과 어떤 점이 다르며, 사람들이 신품종 과일을 찾는 심리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종자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10
펼치기	-18~19 커버스토리 - 이색과일 전성시대	- 신품종 과일의 의미 및 특징 - 과일 디저트 품귀현상	70
	-20~21 커버스토리 - 종자 주권을 지켜라!	- 종자 사용료 - 종자 지급률과 지급 사례	
	-22~23 커버스토리 - 달라지는 과일지도	- 과일 재배지 변화 원인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과거와 비교해 과일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본다.	10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7월호 1주		
학습 목표	신품종 과일이 기존의 과일과 어떤 점이 다른지 특징을 생각해본다.		
활동 초점	- 종자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 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14~25 커버스토리 - 이색과일 전성시대 - 종자 주권을 지켜라! - 달라지는 과일지도	- 신품종 과일 - 종자 사용료, 종자 주권 - 과일 재배지 변화	15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과거와 비교해 과일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본다.	2

커버스토리

이색 과일 전성시대

<어휘 UP>

매출: 물건을 내다 파는 일.

가심비: 가격대비 마음의 만족도를 뜻하는 신조어.

무궁무진: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

품종: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농작물 및 가축 집단.

열풍: 매우 세차게 일어나는 기운이나 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시: 상품이 시중에 나옴.

업계: 같은 산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매진: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팔려 동이 남.

<발문>

1. 그동안 알고 있던 과일의 모양, 크기, 색상을 바꾼 신제품 과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신제품 과일이 나오면 좋을지 상상해 보자.
2. 한 그릇에 8만 원이 넘는 호텔 과일빙수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GS더프레시, 샤인머스켓 등 신종이 '과일 대세'

해마다 이색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색 과일이 과일시장에서 전통 강자를 제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지난해 신제품수입 과일 매출이 전체 과일 매출 가운데 60.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48.7%였는데 불과 2년 만에 11.7%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킹스베리> 딸기와 <엔비> 사과, <샤인머스켓> 포도 등

신제품 과일 매출이 지난해 GS더프레시 전체 과일 가운데 34.2%였고 망고와 오렌지 등 수입 과일 매출이 26.2%였다.

반면 <후지> 사과를 비롯한 배·감·수박 등 전통 과일의 매출액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색 과일 열풍은 온라인과 편의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마켓컬리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수입 과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늘었고 <킹스베리> <만년설> 딸기나 <샤인마토> 토마토 등 신제품 과일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편의점 이마트24에서는 지난해 <샤인머스켓> 포도와 <킹스베리> 딸기 등 신제품 과일과 체라·블루베리 등 수입 과일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불고 있는 이색 과일 열풍에 대해 주신애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기획조사실장은 "전통 과일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새롭고 뛰어난 맛을 즐기기 위해 돈을 더 지불하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실장은 이어 "유통업체들이 과일로 서로 경합할 때 이전에는 가격으로 경쟁했지만 최근에는 신제품 확보 경쟁으로 바뀌었다"며 "유통사 바이어들마다 이색 과일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2020년부터 국산 신제품 농산물 발굴을 위해 'K-품종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해 다양한 국내산 신제품 농산물을 확보해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고, 이마트는 이마트 전용 이색 품종 딸기작목반을 운영해 신제품 딸기에 대한 품질관리와 물량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문정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니스랩 교수는 "국내에서 수입 과일과 신제품 과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산 신제품 보급은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신제품 재배농가들끼리 수평적 연계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유통업체와 수직적 연계로 유통 트렌드를 농가에서 빨리 파악해 그에 맞는 품종을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집콕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더 특별한 고객 경험과 관련 소비가 늘고 있다.

6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상품 과일과 수입 과일 등 이색 과일류의 매출 구성비가 2019년 48.7%에서 2021년 60.4%로 전통 과일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GS더프레시가 분류한 이색 과일류는 킹스베리, 엔비사과, 샤인머스켓 같은 신상품 국산 과일과 망고, 오렌지 등 수입 과일이다. 반면 전통 과일류는 부사 사과, 배, 수박, 감, 캠벨포도 등이다.

독특한 식감과 망고향이 나는 청포도로 유명한 샤인머스켓 매출은 전체 포도 중 71%를 차지하며 대세 포도로 자리 잡았다. 일반 딸기보다 3배 이상 크기가 큰 킹스베리의 경우 올해 전체 딸기 매출 중 37%에 달했다.

GS더프레시는 오는 12일까지 카라카라오렌지(속빨간오렌지), 대왕코끼리망고, 무지개망고 등 이색 과일을 GS페이로 결제할 경우 7800원 균일가로 판매한다.

[뉴시스 2022-04-06]

커버스토리

종자 주권을 지켜라!

<어휘 UP>

지불: 값을 치름.

저작권: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종자: 식물의 씨.

자급률: 자체로 공급하는 비율.

타국: 다른 나라.

고려하다: 생각함.

<발문>

1. 종자 주권을 지니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종자 사용료와 관련지어 생각해보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자.
2. 종자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매년 225억 쏟아 붓고도...종자 로열티로 140억씩 나간다

우리나라가 벼, 장미, 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40억원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종자의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2010~2019년 총 1358억원에 달했다.

가장 규모가 컸던 품목은 벼(492억원)이었고 장미(300억원), 참다래(2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9년 145억원을 포함해 지난 5년간 739억원을 지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 4.1%, 배 14.2%, 난 19.4% 등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농진청은 최근 5년간 총 392건의 신품종을 개발해 194건을 보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종자수입액은 6848억원으로 종자수출액 3114억원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 의원은 "농진청이 국내 품종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품종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농진청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2020-10-13]

커버스토리

달라지는 과일지도

<어휘 UP>

지구온난화: 환경 오염으로 지구에서 발생한 열이 대기를 빠져나가지 못해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만든 기구.

예측: 미리 짐작함.

직격탄: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일.

유통: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거치는 단계.

면적: 면이 이차원의 공간을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

<발문>

1. 2090년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워지는 과일은 무엇이며 재배가 늘어나는 과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이 내용을 토대로 미래의 과일 재배 지도를 그려보자.
2.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을 재배할 수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교사 참고자료>

온난화로 미래 과일 지도 바뀐다... 50년 뒤 사과·배 강원에서만 수확

멀지 않은 미래에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만 사과와 배 재배가 가능하고, 샤인머스켓과 같은 고품질 포도 재배가 가능한 지역도 감소할 전망이다.

대신 제주가 주산지인 감귤은 남해안과 강원도 해안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고, 단감도 중부내륙 전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13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

영한 6대 과일의 재배지 변동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50년 뒤인 2070년대에는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의 재배 지역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들 과일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를 2090년까지 10년 단위로 예측한 결과, 사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배, 복숭아, 포도는 2050년 정도까지 소폭 상승한 후 줄었다. 단감과 감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과거 30년 기후 조건과 비교하면 앞으로 지속해서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2070년대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는 2030년대까지 총 재배 가능지가 증가하다가 2050년대부터 줄고, 2090년대에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복숭아는 2030년대까지 총 재배 가능지 면적이 과거 30년간 평균 면적보다 소폭 증가한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줄어 2090년대에는 강원 산간지역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포도는 총 재배지 면적을 2050년대까지 유지한 후 급격히 줄어 2070년대에는 고품질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감은 2070년대까지 재배 가능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재배 한계선도 상승한다.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내륙 전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감귤(온주밀감)은 총 재배 한계선이 제주도를 벗어나 남해안과 강원 해안지역에서도 감귤 농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와 배는 7도 이하에서 1200~1500시간 이상 경과해야 정상적인 재배가 가능

하다. 사과, 포도는 성숙기에 고온일 경우 과실의 착색 불량 등 품질이 나빠진다. 저온에 취약한 감귤이나 단감은 겨울철의 최저기온이 비교적 높아야 생육이 가능하다.

농진청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로, 과거 예측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작물 재배지 변동에 예측해 본 결과 사과, 배, 포도 등 온대과수는 21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SSP5-8)를 활용해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를 제작, 농업환경에 맞는 '작물별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를 개발했다.

2081년~2100년 사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각각 6.9도, 7.0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아열대기후대(월평균 기온 10도 이상이 8개월 이상 지속)는 2030년대 18.2%, 2050년대에는 55.9%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재배 가능지가 북부나 산지로 약 10~20년 정도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 가능지가 줄고, 확대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생산성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적응형 품종을 육성하고 권역별로 적절한 작목을 배치하고 있다. 사과는 아리수 등 7개 품종, 배 슈퍼골드 등 9개 품종, 포도 흑보석 등 5개 품종이다.

기후변화로 새롭게 재배 가능한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열대·아열대 작물 52종(2020년 기준)을 도입해 적응성을 시험 중이다.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온난화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 적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는 품종과 재배법을 보급하고, 재배지 증가 작물의 경우 수출, 가공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 확대에 힘쓰겠다"며 "주요 과수 작물뿐 아니라, 원예·특용 작물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도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22-04-13]